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광주 8개 업체 첫 참가

AI·지능형 스마트홈 기술 구현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
공기청정기 등 14개 제품 선보

청정기, 공기청정기 S9 등 3개 제품을 전시한다.

생활가전 연구개발 제조업체인 ㈜아이디어스는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카메라인 '스마트아이'를, 헬스케어 업체인 티아이피 인터내셔널(주)은 차량용 공기정화기와 수면유도등, 탈모케어기 등 3개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나선다.

공기청정기 연구개발 제조업체인 ㈜이드엠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공기 살균정화기를 제조하는 ㈜벤텍프론티어는 바이러스에 특화된 항균·항바이러스 공조 필터기술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KOKOS'를 내놓았다.

가정용 난방기기 등을 제조하는 ㈜쓰리에이치(주)는 원격외선 히터 무풍난풍기와 드론 등을 선보이며, 소형 살균 건조기를 제조하는 ㈜아이콘은 IT를 결합한 살균건조기와 젓병 소독기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투시도.

/광주시 제공

를 출시했다. 즉석식품조리기 등을 제조하는 ㈜원성오토텍

은 바코드 인식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인공지능 조리기를 준비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동브랜드 '지엘(GIEL)'을 만들었다.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은 한국을 상징하는 'KOREA'를 전면에 배치하고 '광주 지엘(GIEL)'을 넣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상영해 전시관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전시제품의 크기와 모양을 고려해 탁자 높이도 조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 도시 광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지역 기업이 만든 제품의 판로 확대가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관 운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세계 최초 듀얼 커브드 UHD 모니터...삼성전자, 신제품 라인업

오디세이 G9·뷰피니티 S9 등
DP 2.1 지원 초고화질 구현

삼성전자는 CES 2023에서 세계 최초 듀얼 UHD 게이밍 모니터 등 올해 출시할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대표적인 제품은 4종으로 ▲세계 최초 듀얼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 ▲OLED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9' ▲5K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9' ▲'스마트 모니터 M8' 등이 주인공이다.

'오디세이 네오 G9'는 기존 모델 대비 약 37% 커진 57형 크기에 1,000R 곡률의 커브드 디자인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듀얼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다. 특히, 모니터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DP 2.1 규격을 지원해 최고 수준의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이다.

49형 크기의 OLED 패널이 적용된 '오디세이 OLED G9'도 선보인다. 1,800R 곡률의 커브드 디자인에 32:9 와이드 스크린 화면, 듀얼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이 게이밍 모니터는 픽셀 단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최대 240Hz의 고주사율과 실시간에 가까운 0.1ms(GTG)의 반응 속도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3 미디어데이 첫날인 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삼성 퍼스트룩 2023' 행사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 98형 네오 QLED TV, 77형 OLED TV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것이 특징이다.

5K 고해상도 지원 전문가용 모니터 '뷰피니티 S9'는 그래픽 디자이너나 사진 작가 등 장시간 고화질 이미지나 영상 작업이 필요한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모니터로, QHD 대비 4배 많은 약 1,500만 화소의 5K 해상도에 DCI-P3 기준

99%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

27형·32형 크기의 '스마트 모니터 M8'도 선보인다. UHD 해상도를 자랑하는 이 제품의 색상은 원화이트와 선셋 핑크, 스프링 그린, 데이라잇 블루 등 4가지로 출시된다. 특히 이 제품은 스마트싱스 허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제어·관리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이 콘텐츠' 기능은 삼성전자에서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모바일 기기와 모니터를 저전력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사용자가 모니터에 다가오는 것을 인식, 날짜와 시간, 사진, 일정 등을 모니터로 보여준다. /오지현 기자

중기부 'K-스타트업관' 운영
51개사 혁신기술·서비스 선보
로봇바리스타 커피 등 '눈길'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2023에서 'K-스타트업관'을 5일부터 나흘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인 CES 유레카 파크관에 K-스타트업관을 마련하고 창업기업 51곳의 혁신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소개한다.

K-스타트업관 부스 방문객들은 로봇바리스타가 만들어 주는 커피를 마시거나 의자에 앉아 웅장한 사운드를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데모데이 행사, 투자자 상담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통역, 기업 홍보 및 관람객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의 CES 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K-스타트업이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은 한국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시회 첫날인 5일 CES 현장을 방문해 벤처·창업기업을 격려한다.

6일에는 해외 벤처캐피탈(CVC) 등과 만나 글로벌 펀드 조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홍승현 기자


www.s-class.co.kr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